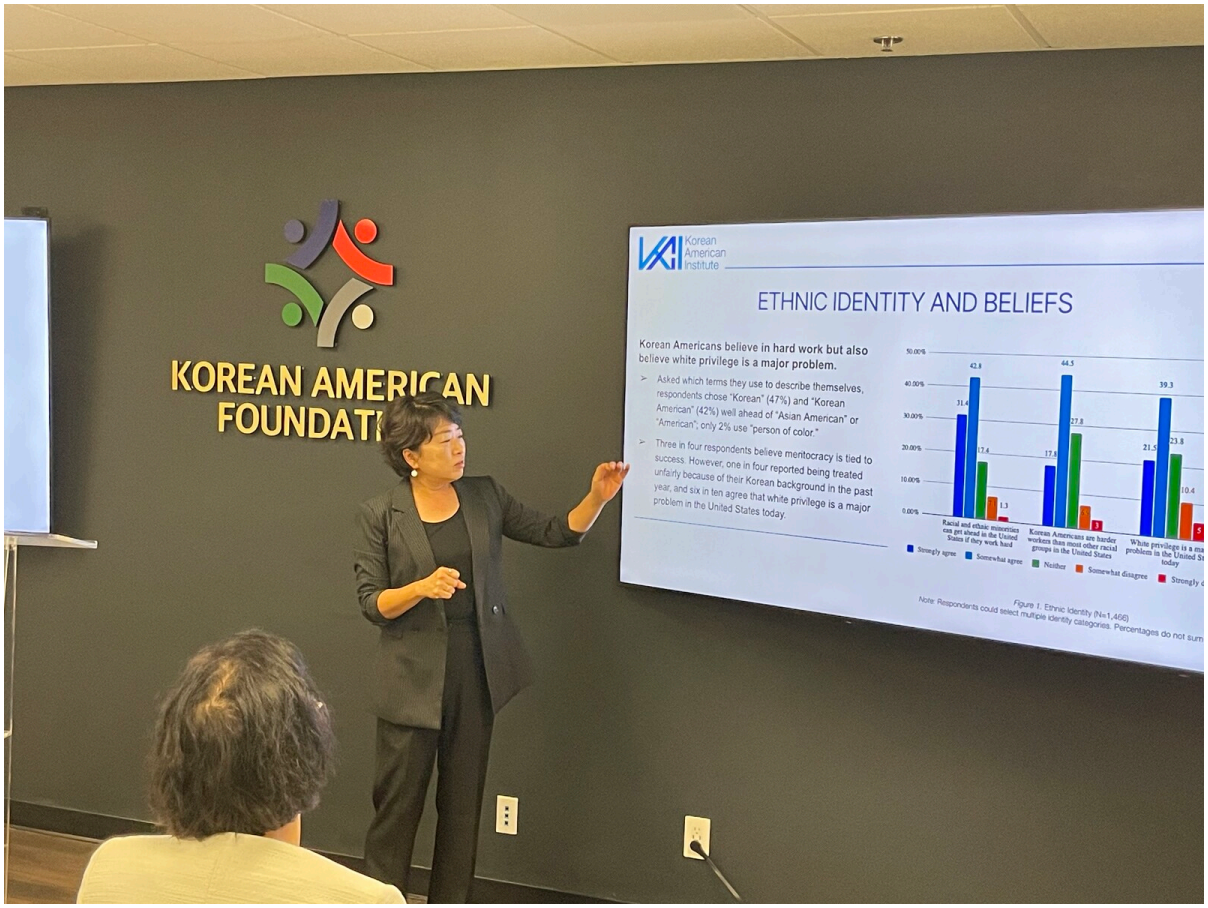
radioKOREA AM1540 뉴스

한인사회 전환기 뚜렷이 드러나, 한인사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안성일 앵커 입력 10.19.2026 04:38 PM 수정 10.19.2026 07:28 PM

EXIT
Korean American Institute
Korean American Community Survey
Press Conference & Community Briefing
October 19, 2026
KOREAN AMERIC
FOUNDATION

EXIT
Korean American Institute
Korean American Community Survey
Press Conference & Community Briefing
October 19, 2026
Demographic Portrait of Survey Respondents
Weighted sample · N = 1,466


KOREAN AMERICAN
FOUNDATI
Korean American Institute
ETHNIC IDENTITY AND BELIEFS
Korean Americans believe in hard work but also believe white privilege is a major problem.
Asked which terms they use to describe themselves, respondents chose "Korean" (47%) and "Korean American" (42%) well ahead of "Asian American" or "American"; only 2% use "person of color."
Three in four respondents believe meritocracy is tied to success. However, one in four reported being treated unfairly because of their Korean background in the past year, and six in ten agree that white privilege is a major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oday.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31.4
42.8
17.4
1.3
17.8
44.5
27.8
3
21.5
39.3
23.8
10.4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can get ahea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work hard
Korean Americans are harder workers than most other racial groups in the United States
White privilege is a ma problem in the United St today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Neither
Somewhat disagree
Strongly
Figure 1. Ethnic Identity (N=1,466)
Note: Respondents could select multiple identity categories. Percentages do not sum

ANGIE Y. CHUNG
UNIVERSITY AT ALBANY, SUNY
Co-Principal Investigator
앤지 정
알바니 대학교
공동 책임 연구자
EDWARD CHANG
UC RIVERSIDE
Co-Principal Investigator
장태환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공동 책임 연구자
JERRY PARK
BAYLOR UNIVERSITY
박자룡
베일러 대학교
SOJUNG LIM
UNIVERSITY AT BUFFALO, SUNY
임소정
버팔로 대학교
MINJEONG KIM
SAN DIEGO STATE UNIVERSITY
김민정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CAROLYN CHOI
PRINCETON UNIVERSITY
캐롤라인 최
프린스턴 대학교

(리포트)미주한인재단과 한인연구소가 후원한 “한인이민 125주년 기념 한인사회 현재와 미래 방향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내 거주 분포가 과거, 동부와 서부로 나눠진 지역에서거주 지역의 다양화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미국 내 한인 인구의 44%가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됐지만, 최근엔 한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존의 주요 이민 거점 도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조지아 주 애틀랜타, 텍사스 주 댈러스 등으로 한인사회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의 형태도 다양해 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22년 약 2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 인구의 0.6%, 아시아계 미국인의 약 9%를 차지하며, 아시아계 인구 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한인사회의 고령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 내 한인 약 20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약 12%였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결혼과 출산이 출생아 수도 줄면서,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인사회의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 결혼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의 책임 연구진 UC 리버사이드 장태완 교수입니다.

인서트

장교수는 엘에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선 한인사회가이민사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한인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서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천 사백 예순 여섯명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인 응답자의 60.5%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구사력과 관련해선 영어를 매우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이민 1세대가 34.6%였지만, 1.5세대는 67%,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상은 82.2%였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에선 정보 습

득의 방법으로 신문 TV 등 레거시 미디어의 역활은 줄어 들었고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인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 부담 탓에 한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의료비 부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이 한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한인사회의 종교관에 대한 변화를 기존의 조사와 다름 점으로 꼽았습니다. 한인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하락했고 타 종교인들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이민 125주년을 맞는 2028년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한인사회의 새로운 모습과 방향이 담긴 목소리가 미국 주류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 되길 희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